



장용석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부원장
yongsukjang@yonsei.ac.kr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장용석 부원장 인터뷰

Q 장용석 박사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을 했고, 첫 직장은 유타대학 사회학과였고 그곳에서 3년 반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사회학과에서 근무한 후 연세대 행정학과에 온지 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학원 부원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고등교육혁신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은 총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Q 최근 공학교육에서도 사회혁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 혁신을 주제로 많은 연구와 출판에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최근 연구 관심에 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은 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사회 혁신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0년 동안 사회학자로서 고민한 내용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공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치들을 보면, 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공공 가치에 상충되는 가치를 융합적으로 결합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



Interviewer | 한경희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국공학교육학회 학회지 부편집위원장

습니다. 기업의 경우, 극도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나 공공부문, 사회복지부문은 공정한 배분과 돌봄 등의 이슈에서처럼 책임성에 기반한 가치를 강조하는 곳인데, 역설적으로 극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국사회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발전주의 중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분배, 복지, 환경, 삶의 질, 행복과 같은 책임성의 이슈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 시대가 끝나고 책임성의 시대가 왔다고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국정 운영 패러다임, 공공부분, NGO에서도 상충되는 가치들이 큰 틀에서 융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경우, 엘리트 교육 중심으로 산업 역군을 키우고 발전시대의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던 시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empowered) 개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교육이나 인적자원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상충되는 가치들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더 이상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민간, 시장, 정부, NGO가 다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장 실패나 정부의 실패라고 불렀던, 한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소위 제 3섹터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의 공공가치는 국가나 시장 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니라 섹터 간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사회혁신을 특정 분야에서 좁게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학제 간 접근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일종의 교육입니다. 공학교육 역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술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것, 복잡 난해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의 메가트렌드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조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회적 기업이나 전통적인 의미의 조직들도 하이브리드제이션(hybridization)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을 고용할 때, 똑똑한 인재를 고용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우 고용에서처럼 사회적 책무가 있는 고용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식의 고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혁신 생태계, 사회적 기업, 공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 부분의 사회적 책임으로 연구 주제를 넓히고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은 현재 고등교육혁신원의 부원장으로 계신데요, 기관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960-70년대의 대학교육은 한국의 산업역군 엘리트를 키워내려는 실용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대접과 보상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을 대표하는 가치가 수월성, 효율성 개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경쟁 속에서 기계적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은 무한히 있습니다. 이제 경쟁만으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연세대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경쟁 가치에 반대되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해 온 것처럼 보이

지만, 사회가 갖고 있는 실제 연세대의 이미지는 세상에서 가장 깽쟁이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인지 모릅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고등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을 겪으면서 올라온 학생들이 주변을 돌아볼 겨를 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교육혁신원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등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따뜻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마침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펀딩을 해주셨고, 총장님께서 책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교과, 비교과 모두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문제를 찾아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팀을 만들어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14개 정도의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팀을 짜서 도전할 수 있는 몇 개의 사업 카테고리를 제공했고 현재 비교과 활동에 참여할 그룹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이니까 사회혁신역량 기초 수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9000개의 수업의 커리큘럼을 모두 리뷰하여 사회혁신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50개 정도의 과목을 선정했고 해당 교수들께 먼저 기초과목의 교수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체 교수들에게 동참해달라는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이제 막 출범하여 3월 1일자로 시작된 조직으로 첫발을 뗀 상태입니다. 사회혁신역량 기초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사회혁신가 인증을 해 줄 것입니다. 인증은 towner, master, champion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수업이 많아지면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의 교육활동에 사회적 가치의 창출, 그러한 노력들을 심고자 합니다. 이런 수업이 늘어나 임계치를 넘게 되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Q 최근 사회혁신이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사회혁신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치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을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마나 많이 산출할 것이냐 이런 고민으로부터 사회의 질, 삶의 질, 행복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대학, 정부, 기업에서 하는 사회혁신에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차별화된 사회혁신의 차이점은 교육입니다. 후속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들에게 어떠한 마인드셋을 심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인재상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좋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좋은 데 취직시키는 기능적 목표 설정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양성하고 그러한 기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돈도 버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 이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중심

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서 협력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시키는, 이런 고민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얘기지만 flipped learning도 사실 강의하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교과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내는 것입니다.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추구하는 비전이나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 추구하는 목표가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이 그 목표를 성찰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여를 통해 바뀌 보려고 하는 것, 공공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착한 일하면서 살라는 나이브(naive)한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에게 기쁨과 경제적가치를 만들어 내는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회 혁신가로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 그런 다양한 형태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편해 보고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고등교육혁신원의 사회혁신교육 프로그램이 공학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공학교육에서는 그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적정기술에 대한 고민도 그런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개발도 그렇고, 문제 중심의 교육을 해 보는 교과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과학과 공학 내에서 법칙을 찾아내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와 닿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든, 그러한 공학 콘텐츠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내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찾아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씽킹처럼 학제간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회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공학교육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고민과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혁신원에서 공학교육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공과대학이 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융합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연구, 융합교육,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했던 형식적인 융합이 아니라, 문제 중심,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 중심으로 하는 융합, 거기서 실행되는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학이나 이학은 전달해야 할 법칙이나 내용이 많은 학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르쳐 지식이 충분한 학생을 내보내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용은 줄이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재 양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계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거 같아서,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비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